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원감국사의 '無碍'

원감국사는 고종13년(1226) 전남 장흥에서 탄생했다. 속명은 위원개(魏元凱), 법명은 밀암(密庵), 법휘는 법환(法桓), 법호는 홍지(仲止), 시호는 원감(圓鑑)이다.

국사는 유년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다. 9세에 휘학(魏學)하여 17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9세에 예부시(禮部試)에 장원으로 뽑혔다. 또한 국사는 사신(使臣)으로 일본에 가서 수려한 문체로 일본인을 놀라게 하였다.

국사는 29세에 불문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기는 전쟁과 민란 그리고 질병 등으로 민중들의 고귀한 생명이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 겪었던 생애에 대한 고뇌였다.

국사는 승려가 된 후 41세가 될 때까지는 두타(頭陀)의 행각(行脚)을 하였으며, 삶도 죽음도 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 정진을 거듭했다. 지리산 상무

사(靈巖寺)에 주석한다. 45세 되는 봄에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노래를 불렀다.

청천(靑泉)

鷄足峯前古道場(계족봉전고도장)
今來山翠別生光(금래산취별생광)
廣長自有清溪舌(광장자유청계설)
何必南浦更擡揚(하필남부경거양)

계족산 봉우리 앞 옛 도량,
이제와 보니 푸른 산 빛 유별나네.
부처님 소리 바로 맑은 시냇물 소리인데,
무엇 때문에 귀찮게 다시 부처님 소리 세우리.

국사께서는 부처님의 법이 자연 자체인 것을, 또한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국사의 수행은 끝이 없었다. 거미줄이 얼굴을 덮고, 무릎에 먼지가 쌓여 새발

가까이서 뵈는 큰스님

담월스님

제천 백련사 회주

“자신 비우는 공부 수행”



담월스님은 자신의 근기에 맞게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쉼없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바른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12년간 '설산고행' 닦은 두타행

티끌-정토가 모두 한 암자려니...

주암에서 홀로 선정에 들때, 그 모습이 마치 허수아비 같았고, 거미줄이 얼굴을 덮고 새발자국이 무릎에 찍힐 정도였다. 국사는 41세에 정진을 중단하고 김해 감포사에 주석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덕(禪德)이 찾아왔다. 그 선덕이 국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이에 국사는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천지를 꿰뚫는 무애(無礙)의 소리를 토했다.

자국이 찍히며 머리카락은 역새풀처럼 변하여 허수아비처럼 되는 선정에 들고는 하였다. 이렇게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선정에 들어있던 어느 날 천지가(天地)를 하였다.

천지일향(天地一香)

塵刹都處在一庵(진찰도노재일암)
不離方丈遍詢南(불리방丈편순남)
善財何用動功甚(선재하용동공근)
百十城中任歷參(백십성중임력참)

티끌과 정토(淨土)가 모두 한 암자, 방장실을 떠나지 않고도 남방을 두루 순방했네. 선재동자(善財童子)는 무엇 때문에 그리도 심한 고생을 자처하여, 백십성(百十城)수를 셀 수 없는 여러 곳을 순력(巡歷)하다니 단단했다.

달빛도 국사의 깨침 앞에 빛을 잃어 버렸다. 천지를 넘어선 국사의 고신풍(高禪風)은 중생세계에 참사람이 되는 길을 인도해 놓고 총명왕 19년(1293)에 몸을 접었다.

무애(無礙)
春日花開桂苑中(춘일화개계원중)
暗香不動小風林(암향부동소림풍)
今朝果熟沾甘露(금조과숙침감로)
無限人天一味同(무한인천일미동)

봄날 꽃은 계원(桂苑)중에 피었는데, 암향(暗香)은 소림의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구나. 오늘 아침 익은 과일엔 감로에 젖었고, 한없는 인천(人天)은 한 가지 맛이구나.

그 후 국사는 감포사를 떠나서 정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말한다. 산은 사랑할 대상도, 정복할 대상도, 탐닉의 대상도 아니라고. 그저 산이 거기에 있어 오를 뿐이고, 내가 존재하기에 오를 뿐이라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믿는다. 산과 자신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산은 자신에게 자연의 이치를 확인시켜 주는 존재이고, 자신은 산에게서 그것을 느낄 뿐이라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은 없다. 그보다 더 순일무잡한 무엇이 과연 있거나 한 것인가?

“저기가 월악산이고 이쪽으로는 치악산이지. 산 하나가 저기에 있고, 산 하나가 여기에 있으니 세상이 온통 산이야. 산은 욕심이 없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생김 그대로 살지.”

점심공양을 마친 담월스님은 평소대로 산을 내려다보았다. 산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다고 하신다.

담월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충북 제천 백련사는 감악산 850고지에 위치해 있다. 산 정상은 960여 미터. 850미터를 이곳에서는 850고지라고 부른다. 대웅전 바로 앞 평평한 작은 바위에 올라서면 월악산과 치악산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욕심이 앞설 리 없고, 세상이 혼탁해 보일 리 없다. 담월스님은 늘 그 자리에 서 있다.

오후 한 시간은 그렇게 지나간다. 산을 굽어보고 할 주위를 산책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오랜 습관이다. 원래 신라시대의 고찰이었으나 화재로 빈 방담만 남아있던 것을 다시 세운 것이 20년이 넘었으니 아마도 그때부터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스님, 수행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아무래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과 산의 의미가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자 양반은 건강하신가. 건강이 최고야.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동문 서답이었다. 움푹 파인 볼과 웃 위로 드러난 어깨뼈의 윤곽. 말 그대로 백만 남은 양상한 스님의 모습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한 눈에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스님은 오래 수행해온 수행자답게 음성은 힘 있고 또렷했으며 눈빛도炯炯하게 살아 있어 주위를 압도했다.

“수행은 자신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

“건강이 최고야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작되는 것이지, 쉽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진리를 얻고자 함이요, 자신을 바로 알고자 함이지.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말과 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의식하고 그 의식을 풀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뜻이 있어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건강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분명했다. 바로 자신이 그랬기 때문이다. 어렵게 시작한 공부였기에 사력을 다해 정진했지만 건강이 나쁜 탓에 원력만 큼 하지 못한 것이 늘 응어리로 남아있다. “작년 봄에 위를 절단했지요. 세 번째 수

술이었어요. 20살 때 좀 위병을 얻어 지금까지 고생이지. 그래서 지금은 허리를 제대로 펴고 앉아있기가 힘들어. 어디 그뿐인가. 백내장 수술도 했지. 탈항 수술도 했지... 걸어 다니는 병동이야.”

그러면서도 호방하게 웃으신다. 욕심이 병들면 마음도 병드는 법. 하지만 적어도 담월스님에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야원 욕심을 정신이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정도도 스님의 정진이 맑았다.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는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지. 이때부터 3살 많은 형과 바가지를 들고 다니며 밥 얻어먹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됐어요. 그때 어떤 스님을 만나 탁발생활을 하기 시작했지. 말이 탁발이지 구걸이나 다름없었고. 그 스님은 사실 진짜 스님은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도 내게 깊은 불연(佛緣)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스님을 따라 다니기도 망쳐 나옴과 나서 만난 사람 역시 까자 스님이었지. 그렇게 가까 사람들이 많았어. 진짜로 내가 스님이 될 수 있는 기회는 13살 때 평양의 영현암에 갔을 때였지. 영현암에는 거룩한 관음상이 모셔져 있었는

데. 그 관음상을 보며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스님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경전공부와 좌선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좌선은 새벽예불을 올리고 난 뒤 1시간 정도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전은 누워서라도 본다. ‘중이 공부 안 하면 뭐하겠느냐’는 생각을 머리 속에서 단 하루라도 지워본 적이 없었다. 그 옛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가 아니던가. 가끔씩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제발선방을 찾아 수행에 몰두했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경봉스님과 통산스님 등 우리나라 불교의 큰 선객들과 함께 공부하던 때가 눈앞에 선하다고도 하셨다.

“출가한 후 처음 결제한 곳은 수덕사 정혜사였어요. 그 후부터 통도사 극락선전, 범어사, 팔공산 파계사, 해인사, 오대산 상원사 등 전국 제방선원을 다니며 수행을 했지. 요즘에는 안거 때도 돌아다니는 스님들이 많은데 그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최근 논란이 됐던 해인사 대불 조성문제

Advertisement for 'Shan Sheng' (山蔘) medicinal product. Includes text about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ul branch.

Advertisement for BBS Buddhist Bookstore. Features a list of products for sale, including sutras and books, and provides contact details for the store.